

---

## 별빛과 작은 로켓이 바꾼 나의 세계

---

우주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, 나는 과학을 ‘외워야 하는 과목’으로만 알았다. 학교 수업은 공식과 특징을 정리하고 시험에 맞춰 암기하는 방식이었고, 실생활과 연결되는 느낌은 거의 없었다. 그래서 과학은 내 장래에 떠올릴 만한 길이 아니었다. 딱딱하고 멀게 느껴졌기 때문이다. 그런데 그 생각을 바꿔준 건 교실이 아니라, 한밤중의 산속과 내 손으로 만든 작은 미니 로켓이었다.

우주센터로 가던 날, 버스 창밖으로 보이던 도심의 불빛이 점점 희미해졌다. 도시의 소음과 광고판의 빛에서 벗어날수록 마음은 조용해졌고, 기대감은 묘하게 긴장감으로 바뀌었다. 도착한 곳은 말 그대로 ‘어둠’이 잘 보존된 곳이었다. 건물의 불빛 하나 없이 둘러싼 산들이 밤의 경계를 만들어냈다. 그 순간 나는 평소의 일상에서 벗어나 ‘무언가 다른 경험’을 하러 왔다는 걸 실감했다.

가장 강렬했던 기억은 한밤중 하늘을 올려다본 순간이다. 그 넓은 캔버스에 수놓인 별자리들, 그리고 은은하게 빛나는 금성, 교과서의 삽화로만 보던 장면이 현실로 존재했다. 그 광경을 보며 ‘우리는 이 거대한 우주 속의 작은 행성 위에 살고 있구나’라는 사실이 갑자기 피부로 다가왔다. 그전까지는 ‘지구’와 ‘우주’가 추상적인 개념으로 머릿속에 떠다녔다면, 그 밤하늘은 그것들을 내 삶과 연결시켰다. 마치 눈앞의 현실에서 벗어나 우리가 우주의 행성중 하나인 지구에 살고있다는 것이 확 느껴졌다. 분명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구인데도 새로운 세계를 알게된 것 같았다. 나는 작고 평범한 존재라는 사실에 겸허해졌고, 동시에 ‘왜’와 ‘어떻게’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솟아났다.

미니 로켓 발사는 또 다른 전환점이었다. 조립할 때는 손끝의 떨림과 집중이 필요했고, 점화 버튼을 누를 때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다. 불꽃과 함께 솟아오르는 로켓을 보며 내가 만든 것이 하늘로 날아가는 현실감은 말로 다 할 수 없다. 그 순간 나는 실험이 단순한 이론 검증이 아니라 ‘직접 해보고 느끼는 창작’이라는 것을 깨달았다. 설계가 잘못되면 실패하고, 개선하면 더 멀리 날아가는 결과를 직접 보면서 문제 해결의 재미와 공학적 사고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.

이 경험들은 내게 과학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를 가져왔다. 예전에는 과학 교과서를 펼치면 ‘외워야 할 항목’만 보였지만, 이제는 한 문장도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. ‘왜 이런 현상이 생기지?’ ‘교실에서 배운 공식이 실제로는 어떤 상황에서 쓰이지?’ 같은 질문들이 생기고, 답을 찾아보는 것이 즐거워졌다. 그래서 수

---

---

업 내용이 시험 점수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, 하늘에서 본 현상을 설명하는 도구처럼 느껴졌다. 프로그램 이후로는 유튜브의 과학 채널을 찾아보고, 칼 세이건의 『코스모스』 같은 책도 펼쳐본다.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면 프로그램에서 느꼈던 신비로움이 다시금 떠오른다.

장래희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. 여전히 나는 여러 가능성 사이에서 길을 찾고 있다. 다만 분명해진 것은 길이 더 넓어졌고, 선택의 폭이 생겼다는 점이다. 우주 관련 직업을 반드시 선택하겠다는 확신은 없지만, 과학과 공학적 사고가 내 삶의 한 축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높아졌다. 그리고 ‘탐구하는 태도’가 어떤 직업을 택하든 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줄 것임을 알게 되었다.

산골의 별빛과 손으로 만든 소형 로켓은 나에게 질문과 새로운 세계를 주었고, 그것들은 나를 더 능동적인 학습자이자 관찰자로 바꾸었다. 앞으로도 나는 하늘을 올려다볼 때마다 그 밤의 감정을 떠올리며, 배움의 방향을 스스로 찾아갈 것이다. 이 체험이 아니었다면, 지금도 나는 과학을 단지 외워야 하는 과목으로만 기억했을지도 모른다. 그래서 이 경험은 나에게 단순한 프로그램 참여 이상의 의미다. 내 삶의 관점을 바꿔놓은 작은 우주였다.

